

## 반대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이사야 60:22, 마태복음 5:1-12

정윤돈 목사님

지난주에 목회자 부부수련회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었다. 예베는 수천 년을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은혜받는 시간 정도가 아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불신자 상태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복음이 조금 일찍 들어온 선진국을 보면, 교회를 잘 안 가는데도 그 삶의 문화가 상당히 복음적이다. 우리나라는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 밖에 안 돼서, 열심히 믿는데도 틀린 것이 있고,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것이 많다. 이스라엘도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이 하는 내용과 반대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꾸지람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폐부를 찌르는 아픈 이야기일수록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러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한다.

### 서론

(1)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의 일차적인 수신자, 대상자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신약을 펴서 읽었더니, 낱고, 낱고, 낱고 하는 이야기라서 힘들다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구약에 나온 그대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임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든지 받아들여든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듣고 행했던 내용과 정 반대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반대도 아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가 그것이었다.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은 이야기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의도인데, 유대인들은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다. 요나 때도 나온 이야기이다.

(2)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치유사역, 수난과 부활, 그 이후의 행적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 복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내용이 자기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반대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생각을 바꿔야 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배척해야 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자. 유대인들은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것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밝혔다. 어떤 랍비도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밝힌 것이다. 이사야 7: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모인 인물들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심을 말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족보를 쓸 필요가

없다.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마가는 그들에게 중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음을 말했다.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란다. 세상 사람은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따져야 하지만 우리는 곁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른 뺨 때리면 왼 뺨도 내어주는 것이다. 물론 꼭 그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디 이쪽도 때려 봐!' 하면 약 오를 수 있다. (웃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케 하신다. 세상의 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 1.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도록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내용들

먼저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역사하신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특히 네 명의 여인이다. 다말의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아들을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았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했다. 다윗이 살인, 간음을 했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나 다름없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다. 왜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나는 해외에 강의를 하러 가면, 3, 4대까지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한다. 자살자, 중독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가계도가 내려올수록 넓어져야 하는데 좁아져서 자기밖에 없다. 자살하고, 실종되고, 형제들이 죽고, 자기만 남은 것이다.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잘못된 가문의 족보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2)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다는 것은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것이 창세기 3:15, 이사야 7:14의 성취였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겠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아버지가 없어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난 위인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구약 때, 오리라고 수백 번 예언하셨다. 그 예언을 열 가지만 맞추려고 해도, 우연히 그 예언을 다 충족할 사람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영원하겠는가. 언젠가는 가는 날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안 계신다. 인간에게는 죽는 날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

(3)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든지,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마태복음 4장에서 미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4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한다. 좋은 직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애인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행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댄스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기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연예인들이 거기에 목숨 걸다가 인기 떨어지니까 공황장애가 오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5)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내용도 우리의 상식과 안 맞다. 반대 내용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신질환, 우울증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너무 문제가 많은데, 끝까지 자기는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문제없으나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항상 행복하다고 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우울증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나의 무능, 열등감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울어라. 그리고 나면 응답이 온다.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공허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식당에서 열을 내면서 따지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은 좋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여러분은 따지지 마시고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란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화평케 해야지, 분란을 계속 일으키면 큰일은 할 수 없다. 이번에 1만 5천 명이 모인다.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다.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일곱 램넛처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최고의 축복은 누가 받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개념이 다르다.

(6)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셨다. 주님은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다. 생명의 확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해 주신 것이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지혜, 다른 능력을 주신다. 불신자는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안 되면 성경을 붙이고 다녀라. 들고 다녀라. (웃음) 우리가 전도자의 메시지만 들으면서 성경을 직접 안 읽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다. 나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수십 번을 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 2. 우리가 바꾸어야 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1) 사람들은 주일성수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일성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것이 아니다. 주일성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온다. 나라와 민족에 더 큰 문제가 온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다 쉰다. 그것만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주일성수만 했는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2) 십일조와 헌금이 손해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부담이 아니다. 십일조 해도 부족하고 안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응답, 희한한 응답,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았지 않다. 램넛 때부터 철저히 십일조를 해야 한다. 체질이 되어야 한다. 적은 돈일 때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1억, 10억, 천 억 되면 더 못 한다. 그러니까 안 주시지 않는다.

(3) 우상숭배하면 복을 받는가? 아니다. 저주를 받는다. 댄스를 하는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는데, 타로점을 쳤더니, 자기가 그것을 하면 대성한다고 점괘가 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이 점괘이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말씀은 안 붙잡는다. 속고 있다.

(4) 세상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지는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5)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라. 응답이 쪽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온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른 지혜를 주신다. 기도는 누림이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key다. 그래서 마태복음 7:7-8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어서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 혹시 특별한 경우에는 육신적인 축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왜 그런가?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 결론

결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반대로 알았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는가?

(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것만 결정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 재앙과 저주를 막게 된다. 이번에 지교회를 갔더니 질문이 나왔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도 말하는데, 다락방 교회는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그래서 대답해드렸다. “머리를 할 때도 원장님이 해 주는 것과 신참이 해 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선포해야 재앙과 저주가 꺾인다.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이렇게 해야 자꾸 계속되는 어려움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자기 주장이 꺾이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주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지 않다.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은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주권을 믿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강단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믿는 것 아닌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길 되신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이다. 신본과 권세가 있지 않는가. 명령하라. 막힌 것이 뚫리도록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라.

(3)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마태 자신이 세리였다. 매국노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의 체질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저주, 재앙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잘못된 생각, 판단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